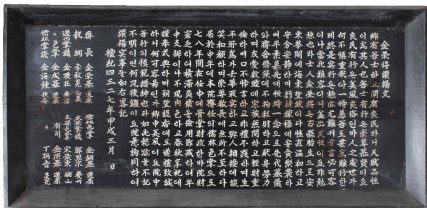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1994_미상(未詳)_미상(未詳) cm



무성서원의 재임(齎任)이던 김영득(金榮得)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1994년 무성서원 재임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글의 작자와 서자는 미상이다.

金榮得讚揚文

鄉有善士하고固有良民하니天賦品性이爲其人也善士有行은崇尊慕賢이요良民有行은美風良俗인바 人之處世가何不愼重哉아一時慈善도甚爲難行한데終是實行은極亦尤難커늘言必可容이나當此難容 이니蓋出天性이요非勉強也라士人金榮得은古縣胎生으로安東華閭에海東望族이다天性直溫하고고守分 安靜하며躬耕稼穡에安貧樂農하며素慕先에恒時一念으로先代慕儀와齋舍修築에不拘私財하고獻身 勞力하며友愛敦睦에宗族無間하고親睦主倫하며口不悖言하고非禮不踐하며生平耶爲가去華取實하고 學人相接에談笑和顔하며崇尊敬長에無所不至하다居於中年에本院齋任의儒林色掌으로七八年間在 任中에管掌財政한바院財窟乏하여積滯負債을儉用節減하여年中支辨이나不現內色하고春秋享祀에 謹奉式典하며朔望設香에도遵禮致誠하니何可容易인가鄉中美風이요院中善行의模範縉紳也라如此懿 跡을不記不明이면何況後鑑이요院意詢同하여讚揚實事을如右畧記

檀紀 四三二七年 甲戌 3月 日

齋長 金榮基 道康

執綱 李敦寬 全義

道內掌議	金煥在 康津	本孫色掌	宋榮東 礪山
道內色掌	金成基 道康	有司	金湊基 道康
儒林掌議	金海鍾 扶安	有司	丁炳吉 靈光
儒林色掌	金綱基 道康		
本孫掌議	鄭熙宗 慶州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고을에 뛰어난 선비가 있고 마을에는 선량한 백성이 있으니 하늘이 내린 품성이 그 사람이다. 뛰어난 선비가 성현을 숭모하고, 선한 백성은 미풍양속을 실천하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겠는가? 일시 자선(慈善)도 심히 행하기 어려운 데 시종 실천하는 것은 또한 극히 어렵거늘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용인될 수 있으나 일에 당해서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 선비 김영득(金榮得)은 고현(古縣)에서 태어나 안동의 유명한 별족이고 해동의 명망가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온화하며, 분수를 지키고 편안하며 몸소 농사지으면서 안빈낙농(安貧樂農)하였다. 평소 선조를 숭모함에 항상 일념(一念)으로 선대의 묘의(墓儀)와 제사(齋舍) 수축에 구애됨이 없이 사재(私財)를 내어 헌신하고 노력하였다. 우애와 화목함은 종족(宗族)에 관계없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인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허황되지 않고 내실을 갖추어 학인(學人)을 만남에 환한 얼굴로 말하며, 성현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함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중년이 되어 본원 재임(本院肅任)의 유림색장(儒林色掌)으로 7, 8년간 재임 중에 재정(財政)을 맡은 바, 서원의 재정이 궁핍하여 부채가 쌓이자 근검 절약하여 매년 부채를 번제함에 내색하지 않고 춘추향사(春秋享祀) 때에는 삼가 제사를 잘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 설향(設香)에도 예를 갖추어 정성을 다하니 어찌 쉬운 일이었겠는가? 고을의 아름다운 풍속이요 서원 내 선행의 모범적인 선비라. 이에 훌륭한 행적을 써 밝히지 아니하면 어찌 하물며 후에 귀감이 될 것인가. 서원의 뜻이 한결같아 그 찬양할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록한다.

단기 4327년 갑술 3월 일

재장(齋長) 김영기(金榮基) 도강(道康)
 집강(執綱) 이교면(李敎堧) 전의(全義)
 도내장의(道內掌議) 김환재(金煥在) 강진(康津)
 도내색장(道內色掌) 김성기(金成基) 도강(道康)
 유림장의(儒林掌議) 김해중(金海鍾) 부안(扶安)

유림색장(儒林色掌)	김동기(金銅基)	도강(道康)
본손장의(本孫掌議)	정희종(鄭熙宗)	경주(慶州)
본손색장(本孫色掌)	송영동(宋榮東)	여산(礪山)
유사(有司)	김정기(金濟基)	도강(道康)
유사(有司)	정병길(丁炳吉)	영광(靈光)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